

시사원정대 NIE 2022-6 월호



Contents

교재 들여다보기

1 주 수업 계획표

1 주 수업 내용

2 주 수업 계획표

2 주 수업 내용

3 주 수업 계획표

3 주 수업 내용

4 주 수업 계획표

4 주 수업 내용

참고자료

교재 들여다보기

1) 시사탐험

최근 가장 뜨거웠던 뉴스를 해설과 함께 소개하는 코너.

최근 이슈가 됐던 뉴스, 국제 이슈, 꼭 알아야 하는 시사 용어 등을 다룹니다. 토론이나 논술 수업의 자료로 적합한 기사가 많습니다.

2) 경제탐험

최신 경제 뉴스와 경제 키워드 및 주목받는 슈퍼리치를 둘러싼 뉴스를 소개하는 코너.

영화·드라마·웹툰 등을 활용한 경제 지식을 쌓으며 돈에 대한 감각과 이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3) IT 융합탐험

최근 IT(정보기술) 분야에서 화제가 되는 첨단 기술과 환경 관련 뉴스를 소개하는 코너.

4차 산업혁명시대와 친환경시대에 걸맞은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4) 문화탐험

창의성과 감수성을 길러주는 코너. 순수예술부터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에서의 체험 등 폭넓은 기사를 소개합니다. 매달 한국학교사서협회 소속 현직 사서선생님의 추천도서를 읽고 토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리딩북(별책부록)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뉴스, 신문의 사설·칼럼·기사를 10대 눈높이에 맞춰 정리합니다. 읽기 능력과 논리력, 사고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5) 리치북(책 속 부록)

최신 주목 받았던 경제 이슈 중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쉽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금융경제 상식을 쌓고 자신의 생활에도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4주 수업 계획표

단원	시사원정대 NIE 6월호 4주 (90분)		
학습 목표	국가부도의 개념과 국가부도 발생 원인을 알아본다. 곤충과 환경에 대해 이해한다.		
활동 초점	- 국가부도의 개념을 이해하고 국가부도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한다. - 곤충겅돈이 발생한 원인과 꿀벌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본다.		
구분	중심 활동과 내용	교사 활동 초점	분
열기	- 지난 주 있었던 뉴스를 돌아본다. (베스트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누기) 스피드퀴즈로 어휘테스트	- 기회는 공정하게 준다. 문제를 간추려 고급 어휘만 추려서 테스트한다.	5
펼치기	- 리딩북(별책부록) 18~23 맞춤사설 고급 - 자유로운 대한민국	- 자유	20
	- 72~75 미디어 속 경제 - 러시아도 날 뻔했던 국가부도란?	- 국가부도 - 국가부도의 원인	40
	- 90~93 에코 스토리 - 곤충겅돈이 시작됐다.	- 곤충겅돈 - 지구온난화	20
마무리	- 펼치기 주제와 관련된 창의활동을 한다. - 다음 주 수업 예고	- 일상 속에서 곤충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고 실천해보자.	5

[40분 수업 시, 활용 방법]

단원	시사원정대 NIE 6월호 4주		
학습 목표	국가부도의 개념과 국가부도 발생 원인을 알아본다.		
활동 초점	- 국가부도의 개념을 이해하고 국가부도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한다.		
구분	중심 활동과 내용	교사 활동 초점	분
열기	- 지난 주 있었던 뉴스를 돌아본다. (베스트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누기) 스피드퀴즈로 어휘테스트	- 기회는 공정하게 준다. 문제를 간추려 고급 어휘만 추려서 테스트한다.	5
펼치기	- 72~75 미디어 속 경제 - 러시아도 날 뻔했던 국가부도란?	- 국가부도 - 국가부도의 원인	20
	- 90~93 에코 스토리 - 곤충겅돈이 시작됐다.	- 곤충겅돈 - 지구온난화	10
마무리	- 다음 주 수업 예고 - 신문 스크랩하기(스케치북활용) 활동 안내	- 일상 속에서 곤충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고 실천해보자.	5

맞춤사설 고급

'자유'로운 대한민국

<어휘 UP>

도약: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임기: 임무를 맡아보는 일정한 기간.

재건: 허물어진 건물이나 조직 따위를 다시 일으켜 세움.

소명: 까닭이나 이유를 밝혀 설명함.

연대: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짐.

번영: 번성하고 영화롭게 됨.

풍요: 흠뻑 많아서 넉넉함.

국정: 나라의 정치.

승자독식: 싸움이나 경기 따위에서 이긴 사람이나 단체가 이익 따위를 다 차지함.

화두: 이야기의 첫머리.

양극화: 서로 점점 더 달라지고 멀어짐.

독재: 특정한 개인, 단체, 계급, 당파 따위가 어떤 분야에서 모든 권력을 차지하여 모든 일을 독단으로 처리함.

결재: 결정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

<발문>

1. 내가 꿈꾸는 자유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자
2.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된 이유를 조사해 발표해보자.

<교사 참고자료>

'자유' 35번 외친尹대통령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윤석열 대통령이 10 일 취임 일성으로 '자유'의 확대와 '도약과 빠른 성장'을 전면으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20 대 대통령으로 5 년 임기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이러한 나라를)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핵심 키워드로 '자유'를 강조했다. 총 16 분 분량의 원고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35 차례 언급했다. 그는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라고 말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정치, 경제적 자유가 널리 보장된 곳에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다는 것이다. 국정 운영의 핵심 철학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회복'을 내세운 배경도 이러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니다"라며 "자유 시민이 되려면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 온 화두인 공정한 기회 보장, 약자에 대한 배려 등도 '자유'의 확대라는 차원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이날 취임사에는 통상 희망을 강조하는 역대 대통령의 취임사와는 달리 민주주의의 위기, 양극화의 심화, 북한의 핵 개발 등 한국 사회가 처한 위기에 대한 진단이 많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우선 초저성장, 대규모 실업, 양극화 등을 거론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원인으로서는 '반(反)지성주의'를 겨냥했다. 극단적 진영 논리에 빠져 신념이 사실을 압도하는 '포스트 트루스(탈진실)' 시대와 '민주 독재'라는 말이 나올 만큼 다수의 힘으로 독주하는 한국 정치의 현실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해법으로 '도약과 빠른 성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 실험 재개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대북 메시지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북한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4 만 1000 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 직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1 호 결재'로 국회로 보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서명했다. 이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장관 7 명을 임명했다.

[동아일보 2022-05-10]

미디어 속 경제

러시아도 날 뻘했던 국가부도란?

<어휘 UP>

침공: 다른 나라를 침범하여 공격함.

채무: 재산권의 하나.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이른다.

상환: 갚거나 돌려줌.

부도: 어음이나 수표를 가진 사람이 기한이 되어도 어음이나 수표에 적힌 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

소기: 기대한 바.

고질적: 오래되어 바로잡기 어려운.

<발문>

1. 국가부도의 개념을 이해하고, 국가부도가 발생하는 주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2. 국가부도를 극복하고 경제 성장을 일군 나라를 조사하고 발표해보자.

<교사 참고자료>

'중 일대일로 빛더미' 스리랑카, 결국 국가부도

스리랑카가 1948년 건국 후 최초로 19일 '국가부도(디폴트)'를 선언했다. 중국의 경제영토 확장 사업 '일대일로(一帶一路)'에 참여하며 막대한 빚을 진 와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핵심 산업인 관광업이 무너지자 버티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후 파키스탄, 페루, 레바논 등 주요 개발도상국에서 경제난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스리랑카의 부도 선언이 다른 개도국의 연쇄 부도로 이어져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블룸버그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스리랑카는 7800만 달러(약 998억 원)의 대외 채무를

갚지 못하고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다. 이미 지난달 초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을 때까지 510억 달러(약 62조 원)에 달하는 대외 부채 상환을 유예한다며 일시적 디폴트를 선언했다. 이후 한 달이 넘게 흘렀는데도 이를 갚지 못해 최종 부도를 선언했다.

난달랄 위라싱게 중앙은행 총재는 "채무 재조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것"이라며 향후 수개월간 물가 상승률이 40%까지 치솟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리랑카는 IMF의 구제금융에 목을 매고 있지만 IMF는 채권단과의 채무 재조정, 구조조정 등이 우선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인도, 중국, 세계은행 등에 손을 벌리려고 하고 있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다. 서민들은 휘발유, 식료품, 의약품 등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스리랑카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12년 말 집권 후 대대적으로 추진해 온 일대일로에 참여했다가 빚더미에 올랐다. 중국 돈을 빌려 공항, 항구, 철도 등 각종 인프라 건설을 통한 경제 발전을 꾀했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대중국 부채만 잔뜩 늘어 사실상 중국의 경제식민지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리랑카 정부는 대외 부채 중 10%가 중국에 진 빚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그 비율이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미국의소리(VOA)는 스리랑카의 국가 부채 중 22%(110억 달러)가 중국에서 빌린 돈이라고 분석했다. 2017년에는 중국 빚을 갚지 못해 남부 요충지 함반토타 항구의 운영권을 99년간 중국에 내주는 일까지 겪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스리랑카가 일대일로 때문에 '빚의 덫(debt trap)'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고질적인 정정 불안, 부정부패, 족벌 정치 등도 경제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고타바야 라자팍사 현 대통령의 친형인 마힌자 라자팍사 전 총리는 경제난의 책임을 지고 9일 사퇴했지만 대통령 퇴진까지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위가 약탈, 방화, 폭동으로 번진 상태라 언제든 대규모 유혈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에코 스토리

곤충겅돈이 시작됐다!

<어휘 UP>

상쇄: 상반되는 것이 서로 영향을 주어 효과가 없어지는 일.

개간: 거친 땅이나 버려 둔 땅을 일구어 논밭이나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들.

서식지: 거친 땅이나 버려 둔 땅을 일구어 논밭이나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들.

안보: 편안히 보전됨. 또는 편안히 보전함.

폐사: 주로 짐승이나 어패류가 갑자기 죽음.

급격한 기온 변화나 병원 감염으로 소, 오리, 물고기, 조개 따위가 죽는 것을 이른다.

방화: 일부러 불을 지름.

<발문>

1. 꿀벌이 사라진 이유를 알고, 꿀벌 외 멸종 위기에 처한 곤충을 찾아보자.
2. 지구온난화를 막고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실천해보자.

<교사 참고자료>

“곤충에겐 생지옥”...인류 위협하는 ‘곤충겅돈’

현대식 집약농법이 기후변화로 이어져 곤충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곤충 개체 수와 다양성 급감이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내에서도 올 초 100 억 마리 꿀벌이 사라져 관심을 모았는데, 기후변화가 원인으로 꼽혔다.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곤충이 사라지는 ‘곤충겅돈’(곤충+아마겅돈)의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 네이처에 실린 ‘곤충 종말론’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연구진은 전 세계 6000 개소의 토지이용 현황과 해당 지역에 서식하는 곤충 1만 8000 종의 개체 수가 최근 20년간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했다고 20 일(현지 시간)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다.

연구 결과 기후변화와 현대적 집약농법 도입에 따른 서식지 파괴가 심한 지역에선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곤충 개체 수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고, 서식하는 종의 수도 27%가량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현상은 열대지방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조사 지역 인근에 자연 서식지가 있으면 기후변화와 농업 활동이 곤충 생태계에 미치는 충격이 일부 상쇄됐지만, 대규모 개간과 화학비료, 살충제 등 현대 집약농법이 이뤄진 지역에선 이 같은 현상조차 나타나지 않았다. 서식지 파괴가 적은 구식 농법을 쓰는 곳에선 곤충 개체 수와 서식종 수가 각각 7%와 5% 줄어드는 데 그쳤다. 반면, 집약농법이 쓰이는 곳의 곤충 개체 수와 서식종 수는 각각 63%와 6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이와 별도로 농지와 방목장을 만들기 위해 자연 서식지를 파괴한 지역에선 기후변화가 심화하고 이상기온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후변화와 집약농업에 따른 서식지 파괴로 지구 곳곳의 곤충 생태계가 차례로 붕괴 위험에 몰렸다”고 경고했다.

연구진은 꽃가루를 옮겨 식물이 열매를 맺도록 하는 곤충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현상이 인간 건강과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CNN은 집약농업과 기후변화의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의 최근호에 게재됐다.

● “꿀벌이 사라졌다”

그동안 곤충 개체 수가 줄고 있다는 연구는 종종 있었다. 브래드퍼드 리스터 미렌슬레어 폴리테크닉대 생물학 연구팀은 푸에르토리코 열대림에서 꾸준히 곤충과 거미를 잡았는데, 1977 년과 2013 년 사이 4 분의 1 에서 8 분의 1 로 중량이 준 것을 발견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2019 년 ‘곤충겅돈(곤충+아마겅돈)은 얼마나

현실적인가라는 기사를 통해 곤충이 사라지고 있는 현상을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곤충의 감소가 이들을 먹이로 삼는 척추동물 등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초 전국적으로 벌통 50 만 개 이상, 100 억 마리 가량의 꿀벌이 죽거나 사라져 관심이 집중됐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벌들이 밖에 나갔다가 못 돌아온 '월동 폐사'를 원인으로 분석했다. 일벌 무리가 돌아오지 않으면서 남은 여왕벌과 애벌레가 따라 죽는 벌집 군집 붕괴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날씨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개화 시기인 봄이 짧아져 벌들이 활동할 시간이 줄어든 데다 가을에는 저온현상으로 벌들이 많이 크지 못했다. 겨울잠에 들어간 벌들은 12 월 고온현상으로 일찍 바깥에 나왔다가 체력을 잃고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꿀벌이 사라지면 꿀벌의 수분 활동으로 성장하는 농작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농작물 생산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아몬드나 당근, 양파 같은 작물은 꿀벌에 100% 의존하는 작물이다. 이 때문에 미 캘리포니아 아몬드 협회는 꿀벌 폐사 현상을 중대한 위기로 본다. 세계적인 환경단체 '어스워치'도 "대체 불가능한 생물 5 종 가운데 꿀벌은 첫 번째 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 "우리의 유일한 집에 불을 지르고 있다"

기후 위기 경고음이 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즉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유엔이 발표한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IPCC)' 보고서에는 이 같은 위기의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기후변화의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오염원들이 우리의 유일한 집을 방화했다"고 했다. 또 "인류가 생존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투자에 대한) 지연은 죽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들은 기후 변화가 20 년 전 과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파괴적이고 광범위하다고 분석했다.